

복부비만과 발기부전의 연관성

심현준, 노지훈, 임열리, 김규남, 박민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연구배경: 최근 발기부전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위험인자의 교정을 통한 예방 및 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복부비만은 심혈관계 질환 및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의 위험인자로서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허리둘레 측정과 '한국어판 5문항 발기능 측정 설문지'를 이용하여 복부비만과 발기부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2년 4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내 일개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20세 이상의 남성 중 발기부전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20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5문항 발기능 측정 설문지' 자기기입과 허리둘레 측정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어판 5문항 발기능 측정 설문지'의 점수 17점을 기준으로 정상군과 발기부전군으로 분류하였고, 허리둘레 90 cm를 기준으로 정상과 복부비만으로 분류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의 연령(±표준편차)은 48.8(±9.7)세였다. 설문조사 결과 발기부전군이 67명(33%)이었고, 허리둘레 측정 결과 복부비만군이 48명(24%)으로 나타났다. 연령, 비만, 교육수준, 수입정도 등을 보정한 결과 복부비만과 발기부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P>0.05$).

결론: 발기부전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본 연구에서 발기부전과 복부비만의 유의한 연관성을 밝힐 수는 없었다.

중심단어: 발기부전, 한국어판 5문항 발기능 측정 설문지, 복부비만, 허리둘레